# 野 "이제 시작" 전선 확대 與 "참여정부 특사" 역공

**이완구 총리 사퇴…정국 소용돌이**

## 속도 붙은 검찰 수사 향배 촉각
## 4·29 보선 전략 재조정 불가피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검찰 수사의 향배에 따라 정국은 크게 요동칠 전망이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21일 대검찰청 주례간부회의에서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장이 '일체의 다른 고려없이'를 강조한 것은 여야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치권은 검찰 수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이완구 총리가 자진 사퇴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4월 보궐선거 전략에 변화를 꾀하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궁지에 몰렸던 새누리당은 21일 이완구 총리의 사의 표명이 이뤄지자 전열 재정비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 귀국 전에 이 총리가 전격 사의를 밝히면서 악화일로였던 민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두 차례 사면을 받은 점을 부각시키며 '야당 책임론'을 집중 제기하는 등 역공에 나섰다.

이를 반영하듯, 권성동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여정부 시절 이뤄진 성 전 회장의 두 차례 사면과 관련, "당시 사면이 청와대 주도인지, 법무부 의견인지 규명해야 한다"고 새정치연합을 겨냥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이 총리에 화력을 집중했던 야당이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한 나머지 7명의 여권 인사들에 공격을 집중할 것에 대비,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날 이완구 총리가 사의를 표하자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한 다른 여권 인사들에게 과녁을 돌리는 등 전선 확대를 시도했다. 그러나 역풍을 의식한 듯 이 총리와 달리 다른 인사들에 대한 즉각 사퇴 요구는 삼가는 등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총리 사퇴는 수사의 시작"이라며 "리스트에 거명된 8명에 대해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성완종 리스트에 적시된 홍준표 경남지사,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은 물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검찰에 압력을 가한 의혹이 있다"며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

한편, 내부적으로는 '해임건의안' 정국 속에 4월 보궐선거를 치르려던 계획이 총리의 조기 사퇴로 희석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보수층 결집 역풍이 거론되면서 선거 전략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날 황교안 법무장관이 불법 정치자금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성완종 파문 수사에 '야당인사 연루설'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금호산업 인수전, 금호·호반 상생의 길 찾아야"

## 윤장현 광주시장 "지역 대표기업, 채권단에만 이익 주는 무한경쟁 우려"

### 광주U대회 최고의 흥행카드
### 北 응원단 참가 성사에 최선

윤장현 광주시장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금호산업 매각 본입찰을 앞두고 금호아시아나그룹(금호)과 호반건설(호반)간 무한경쟁에 우려감을 나타냈다.

윤 시장은 21일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금호와 호반의 금호산업 인수전을 묻는 질문에 "금호는 (광주)지역의 자존심이자 뿌리 있는 전통기업이고, 호반은 지역의 희망을 안고 새롭게 성장하는 기업"이라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두 기업이 채권단에게만 이익을 주는 무한경쟁을 지양해야 한다는 시민과 시민단체, 경제계의 뜻에 동감한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시장(市場)의 문제를 시장(市長)이 언급한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지역 경제계의 중요한 일이고 지역민이 우려하는 부분에 응답할 책무도 있다"면서 "금호와 호반, 두 기업이 상생의 길로 갔으면 한다. 지역민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꼭 상생의 길로 가셨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금호산업 인수전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파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상공인들이 적극적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면서 "지역 경제를 고려하지 않은 매각이익 극대화 방식으로 금호산업이 매각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시장은 "이번 상공회의소 선거 과정과 여러 경로 등을 통해 두 쪽(금호, 호반) 모두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러한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면서 "채권단이 광주의 대표기업들을 먹이를 키우는 필드로 여기는 것만큼은 피해야 한다. 정말 그렇게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오는 28일 금호산업 매각 본입찰이 예정돼 있으며, 현재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호반건설간 '2파전'으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금호산업 지분 '50%+1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강한 인수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호반건설도 자금조달 등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윤 시장은 또 광주여성재단 대표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오늘(21일)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로 장혜숙 전 광주YWCA 이사장을 임명했다"면서 "장 대표이사의 이력과 능력 등을 볼 때 재단을 맡아 이끄는 데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 신임 대표이사는 광주시의회의 민선 6기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광주시 산하 첫번째 기관장이 됐다. 앞서 첫 인사청문회 대상이었던 김대중컨벤센터 사장 후보자는 시의회의 부적격 지적 등으로 자진사퇴했다.

윤 시장은 광주 U대회 준비를 묻는 질문에는 "가장 큰 흥행요소인 북한 응원단 참가와 성화 남북공동 채화는 정부도 공감하고 있으며, 북측도 광주의 바람을 잘 알고 있다. 희망과 기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시장은 최근 조직위 비상근 부위원장에 임명된 김응식 광주시 체육회 부회장과 정용화 호남미래연대 이사장의 부위원장 역할에 대해서는 "개막 2개월여를 앞둔 상황에서 대회 준비에 시너지 효과를 위해 맡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조직위가 세계대학스포츠연맹과의 관계나 대회 준비 등 하드웨어 부분을 진행했다면 부위원장은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챙겨주고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시장은 미국 하버드대학과 보스턴대학에서 세계적인 팝페라 가수이자 광주U대회 홍보대사인 임형주와 함께 U대회를 알리기 위한 특강차 22일 출국해 26일 귀국한다.

윤 시장은 "하버드, 보스턴 대학에서 U대회 소개 및 광주정신, 평화, 문화 등에 대해 30분씩 특강을 하게 됐다"면서 "보스턴시장과 교류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진보적인 학자인 놈 촘스키도 만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새누리 최고위회의 압박에 두 손 들어

**이총리 한밤 사의 표명 배경은**

## 새누리-청와대 핫라인 가동

이완구 국무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지난 20일 여권 핵심부는 급박하게 돌아갔다.

이 총리가 이날 오전 9시께 정부 서울청사로 평소와 달리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말없이 출근했다. 별말은 안 했지만, 이때만 해도 이 총리의 총리직 수행 의지에는 변함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은 여당 지도부의 입장이 바뀌면서 뒤집어졌다. 오전 9시30분 서울 관악을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새누리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는 이 총리의 거취 문제와 관련, '박 대통령 귀국 전 사퇴 불가피론'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 결과를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의 이런 분위기는 이 총리에게도 전달됐다. 이 분위기 전달은 이 총리에게 여러 채널을 통해 전해졌다.

이병기 실장은 중남미 순방차 페루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새누리당 지도부가 전달한 입장과 국내 동향 등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당 지도부 간에 긴급한 의견 교환이 오가는 사이 이 총리도 본인의 거취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흔들림없이 국정을 챙기겠다"고 강조해온 이 총리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대구도시철도 3호선 개통식에 불참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의 심경에 변화가 생겼음을 짐작하게 했다.

다만, 이 때까지만 해도 이 총리가 박 대통령 귀국 전에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총리실 관계자들도 이 총리가 21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 총리가 오후 5시께 평소보다 일찍 총리공관으로 퇴근하면서 총리실 분위기가 긴박하게 돌아갔다. '이 총리가 마음을 정한 것 아니겠느냐'는 말이 돌았다.

그리고 자정 직후에 이 총리가 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이 한 언론의 보도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첫 보도가 나오고 20여분 뒤에 이 총리의 사의 표명을 확인했다. 국무총리실은 0시52분 출입기자들에게 긴급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총리의 사의 표명 사실을 알렸다. /박지경기자 jkpark@

# '총리 잔혹사' 다음 후보는 누구?

**차기 총리 인선 관심**

## 윤증현·황찬현·이주영 등 거론

역대 '단명' 총리 현황

| | 취임·사임 일자 | 재임기간 | 사유 |
|---|---|---|---|
| 이완구 | 2015.2.17~4.21 | 63일* | 개인비리 의혹 |
| 허 정 | 1960.6.15~8.18 | 65일 | 5·16 군사쿠데타, 정치적 격변 영향 교체 |
| 노재봉 | 1991.1.23~5.23 | 120일 | '강경대 사망사건' 책임 |
| 이회창 | 1993.12.17~1994.4.21 | 125일 | 김영삼 대통령과의 불화 |
| 박태준 | 2000.1.13~5.18 | 126일 | 조세 회피 목적의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 |
| 현승종 | 1992.10.8~1993.2.24 | 140일 | 노태우 대통령 취임 맞춰 사임. |
| 변영태 | 1954.6.27~11.28 | 155일 | - |
| 최두선 | 1963.12.17~1964.5.9 | 145일 | - |
| 신현확 | 1979.12.13~1980.5.21 | 161일 | - |

*박 대통령, 순방중이라 사의를 즉각 수용하지 않고 귀국 후 수용 방침. 공식기간 재임기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연합뉴스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차기 총리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총리 낙마' 트라우마에 여권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실제로 초대 총리로 지명된 김용준 후보자의 사퇴와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빚어진 안대희·문창극 후보의 연쇄 낙마 사태는 박근혜 정부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다.

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맞아 개혁 과제 추진과 정치권과의 소통에 방점을 두고 이완구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총리로 지명했지만 취임 두 달 만에 성완종 파문의 직격탄을 맞으며 중도하차하는 사태가 연출됐다.

박 대통령은 귀국 이후 이 총리의 사의를 수용하며 '총리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를 고르기 위해 숙고를 거듭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이 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물러남에 따라 차기 총리 후보는 완벽한 도덕성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정개혁 과제를 완수할 추진력과 정치 개혁의 상징성을 겸비한 인사가 중용돼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무원연금개혁 등 각종 개혁 과제와 경제 활성화를 이뤄내야 하고, 성완종 파문에 따른 정치개혁 요구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도덕성이 검증된 고위 관료 출신이 차기 총리 후보에 적합하다는 얘기와 함께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찬현 감사원장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친박 인사인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의 총리 기용설도 나온다.

도덕성 측면을 부각시킨다면 조무제 전 대법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단골 총리 후보로 거론되지만, 본인들이 고사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호남 총리설이 거론되고 있으나 인재 풀이 넓지 않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